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선의 공간적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 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인 민 영

선의 공간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 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인 민 영

인 준 서

인민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선은 우리의 공간을 규정하는 여러 사물들의 표면을 한정하거나 사물 자체에 속하는 것이기에 표현 되어지는 방법에 따라 외곽선에 한정되기도 하고 선 자체로서도 조형성을 띄고 있다.

본인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을 소재로 공간의 영역을 파악하고 선에 의해 공간성을 인식하게 되는 현대조각에서의 공간표현의 조형성과 내면적인 사유의 세계로 인지하여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공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조형요소인 선을 소재로 공간과 선의 리듬에 의한 변화, 공간의 여백(餘白)의 미를 추구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공간적 요소, 선적인 요소로서 형태적 표현 방법, 등을 중심 서술한 것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작품에 대한 표현 방법,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간 안에서의 선(線)과, 조형적 대상인 ‘나비’에 관하여 서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작품 분석을 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를 서술하였다.

목 차

I. 서론.....	1
II. 본론.....	2
1. 작품의 형성 배경.....	2
1)선의 공간적 영역.....	5
2)나비의 어원.....	6
2. 작품의 형태적 특성.....	8
1)작품의 기초적 형태.....	8
2)작품의 재료.....	9
3)리듬, 반복에 의한 선.....	10
3. 개별 작품 분석.....	11
III. 결론.....	23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선의 흐름 I, 2006, 스테인레스 스틸, 철, 와이어,
200x200x18cm.....13
- 【작품2】 선의 흐름 II, 2006, 스테인레스 스틸, 철, 자개,
200x200x18cm.....15
- 【작품3】 선의 흐름 III, 2006, 스테인레스 스틸, 철, 자개,
200x200x18cm.....17
- 【작품4】 선의 흐름 IV, 2006, 스테인레스 스틸, 자개,
,200x200x18cm.....19
- 【작품5】 선의 흐름 V, 2006, 스테인레스 스틸, 자개, 오브제,
200x200x18cm.....21

I. 서론

공간에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과 측정 불가능한 무한대의 우주공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간을 어떤 제한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경계선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경험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간의 개념도 변하게 되고 현대 미술에 있어서의 공간 개념은 더 넓은 확장의 개념으로 존속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되는 공간은 삼차원의 시각의 차원에 의존하지 않고, 예술에 있어서의 ‘공간은 감각적(感覺的)으로 체험되어지는 경험의 공간으로 명상과 꿈의 세계를 열어 주는 환각적인 수단’¹⁾으로 형성되는 무한한 공간이며 장소적 의미뿐 아니라 시간의 개념까지도 포함한다.

이에 본인은 공간이라는 영역에 예술의 근본적인 매력은 감성이며, 인간의 사고 의식의 전체를 통하여 보다 내면 깊은 곳의 잠재 의식을 자기표현에 대한 하나의 언어로서 실현시키고 자아 속에서 자연스런 감성 표현을 통해 조형화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공간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형적 표현요소인 ‘선’을 통하여 공간을 시각화함으로써 작품을 전개해 나가는데, 공간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작품에서 조형화된 선(線)구성으로 잠재적인 공간성을 경험하고자 작업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1) E·B펠트만, 김준일 역, 「미술의 구조적 이해」, 열화당, 1983 p.16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1) 선의 공간적 영역

무한세계인 공간²⁾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대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주위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형체이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의 미술은 특히 모더니스트들은 전통양식으로부터 탈피를 주장하고, 예술에 대한 부정과 비 관례적인 예술, 이른바 미니멀리즘³⁾, 개념미술⁴⁾을 등장시켰다. 현 21세기에는 모든 예술적 영역이 무너지므로 인해 예술적 미의 기준은 작가로부터 부여하고 재해석 된다.

“각 시대의 문화는 그것에 따른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화하여 만들어내게 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들 시대의 공간개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정의 내리려 하면 적지 않은 망설임이 생긴다. 이 애매함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공간) 자체에 있다. 이 말이 혼란을 더하는 것이다.” 모홀리 나기 (1895~1946는 「새로운 시각」 (1923)에서 이렇

2)공간의 사전적 의미 1. 상하좌우, 전후로 무한하게 펼쳐있는 빈곳. 2.쓰지 않는 빈칸 3. 시간과 더불어 물체계를 성립시키는 기초 형식. 4. 감각의 질 또는 강도로부터 분리하여 고찰된 분리, 방향, 대소가 동시에 이루는 연관. 바른말 국어대사전, 양주동 김수, 대성 출판사,1979,p77

3) 미니멀리스트들은 하나의 인식론적인 입방체를 도입시켰는데, 이거은 명백함, 개념상의 엄격함, 꼼꼼함 그리고 단순성에 대한 전념을 뜻하는 것이다. 니코스 스태고스 편 「현대미술의 개념」,성완경·김안례 역, 문예출판사, 2000, p356

4) 개념주의적 활동이나 표명들의 광범위한 공간을 언어의 사용과 사진, 주체의 사용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집단과 범주로 분류, 재분류할 수 있다. 위책, p388

게 쓰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우선 우리가 어떤 공간개념을 갖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수학적, 물리적, 연극적, 옥경(球狀), 결정적(決定的), 입체적(立體的), 쌍곡(雙曲)적, 포물(拋物)적, 타원적, 실제적, 표면적, 선(線)상, 일차원, 2차원, 3차원, n차원, 등질상(等質狀), 지형학적, 투영적, 가측(可測)적, 상상적, 우한, 무한, 우주적, 추상적, 현실적, 상대적, 허구적, 절대적, 균일적, 에테르적, 내적, 외적, 운동, 혈상(穴狀), 진공상, 형식적.... 공간”⁵⁾

공간이 갖는 말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안에서 속성을 찾는 것 또한 어려움을 갖는데 있다. 공간 즉 어떠한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있는 영역 안에서 선과 같이 공존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의 조형성과 나비의 형태성은 공간이라는 곳에 존재성을 두고 있다.

나움가보(Naum Gabo, 1890~1977)는 구성주의의 또 다른 개념을 발전시킨다. 가보는 전통적인 양감과 부피의 비 물질화(非物質化)를 적극적으로 실험하며, 공간 안에서의 역동적인 형태, 심지어는 조각을 위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된다. 가보는 1920년에 리얼리즘 선언을 발표하고 “생명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의 두 가지 기본적 요소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괴(量傀)는 유일한 공간적 요소는 아니다. 시간의 진정한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다이내믹한 요소가 쓰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선적인 요소를 사용한 작품에서 가보는 공간표현으로의 부피를 부정했으며, 조형의 요소로서의 물리적 덩어리를 거부하고 미술의 요소는 ‘동적인 리듬’에 기초한다고 했다.

이것은 사물의 비 물질화를 말하며 즉 공간자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공간을 어떠한 제한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경계선 안에 존

5) 나카하라 유스케(中原佑介)저, 「現代彫刻」 이윤신 한국미술년감사, 1989 ,p123

재하는 것으로 경험하고 바라본다. 이러한 공간은 길이, 넓이, 높이와 같은 양감의 차원들을 가지고, 공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체와 그것을 인지하는 인간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며, 공간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그들의 시각세계를 심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⁶⁾

공간이 갖고 있는 영역은 작은 단위로는 나와 우리 그리고 사회라는 집단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형태를 볼 수 있지만, 형성의 단위로는 나의 영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의 과장된 망상에서 비롯되어진다.

공간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최소단위인 ‘나’로 인해 그 영역 안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간과 비가시적으로 보이는 공간을 말하고 있다.

공간 속의 선(line)은 조형미술에서는 기본적 요소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선에 흐름의 윤곽선이 반복과 일정한 변화에 따라서 부드러움 속에 재질의 변화와 선일수록 수동적 일 수 있다. 그 형태만으로도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 반복과 일정한 변화에 따라 성격을 나타낸다.

하버트 리이드는 “선은 사물의 윤곽선을 나타낼 뿐 아니라 선 자체의 자율적인 운동을 표현하며 나아가 선이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 울동이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선은 장단, 각도,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표정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함으로 선 그자체가 작가의 감정 상태 및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공간이라는 영역 안에 서로를 이어주는 선을 통해 화합과 반복의 인연을 반복적 이미지로 공간을 구성함으로서 선들이 이루는 자율성과 리듬감, 부드러운 선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공간 안에 이루는 각 개체간의 연결 속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선의

6) 김복영 저, 『현대 공간의 조형론』, 홍익미술 제3호, 1974, p1.

형태는 시각적 이미지와 아귀가 맞는 이야기처럼 연결된 서로간의 이해관계에서 벌어지는 운명처럼 정해진 듯, 견고한 선의 정적인 시각적 이미지와 그 안에서 보이는 공간적 여백(餘白)의 미(美)를 결합하여 조형화 하였다.

조각적 공간인 양괴(量傀)는 공간 속에 공간을 점유한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선사시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조각은 단단한 형태와 덩어리 개념으로 이해 되어왔고 조각에서의 공간은 조각의 논리적 정의에 속하는 단단한 덩어리 매체를 가지고 공간이라는 요소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공간 ‘속’에서 즉, 공간을 점유하는 완전한 덩어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깎인 고체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차지한 공간이 표현적인 기능을 하고 부피를 창조하는 것은 조각의 본질적인 것이며 그것은 속이 빈 구멍들로 이루어진 미술인 건축의 기능과도 같은 것이다.⁷⁾

선(線)이란 무엇인가? 선은 연속된 점(點)으로 이룩된 것으로 지향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 “점(點)은 목적이 없으며 지향성이 없는 혼돈 상태이니 곧 태초이요, 태고(太古), 그 자체이다.”⁸⁾ 따라서 점은 무질서한 현상으로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가능성이 곧 선 일부를 말하고 있다.

선(線)은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로서 그 자체로도 충분한 운동이나 방향의 힘을 표출한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선은 어떤 조형요소보다도 가장 창조적인 요소로서 작가의 정신적 세계의 흔적으로 남기며, 공간적 영역을 대한 다양한 성격을 지니며 의도한다.

7) 하버트 리드 저. 김성희, 「서양현대조각의 역사」, 시공사, 1998. p99

8) 고유섭, 「한국미술사 및 미학논고」, 서울 : 통문관, 1963, p100.

2)나비의 어원

나비의 유래와 기원은 민화나 고화에 많이 등장하는 호랑나비나 제비나비형태의 그림은 다수 있지만 한자문화권이라 그런지 '나비'라는 말은 늦게 나타난다. 나비라는 말은 나불나불 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펼럭이는 것도 같은데), 고서에 호접(胡蝶:범나비), 황접(黃蝶:노랑나비) 등으로 나타나다가 1481년에 나온 두시언해(杜詩諺解)에서 나비 또는 나뵤로, 1527년에 나온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나뵤로, 숙종 시절(1675~1720)에 나온 시몽언해물명(時蒙諺解物名)에는 남이로 나온다. 그 후로는 나뵤 또는 나비로 불려오다가 현재 나비가 표준말이 되어 쓰여지고 있다. 아직도 지방에 따라서는 나부 또는 나베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따라서 나비의 과거 역사에 관한 자료는 나비는 몸이 부서지기 쉽고 단백질성분이 많아 죽으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화석 자료로 남는 일이 드물다. 그 조상에 대한 자세한 모습조차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나비와 식물(현화식물) 사이에 수정을 시키는 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미루어 평행하여 진화되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현화식물의 가장 오래된 화석은 백악기 후반(약 9000만년 전)의 것이나 그때는 이미 여러 가지 현화식물의 과나 속이 번성하고 있었으므로 현화식물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이전일 것이다. 만약 현화식물과 나비가 같은 시대에 진화하여 왔다면 나비도 1억5천 만년-2억년 전에 나타났음이 틀림없다. 그렇게 보면 나비는 삼첩기에 그 기원이 있으며 그것은 포유동물의 기원과 같은 시대라 할 수 있다.

본인은 나비를 모티브로 '의태어'로서 날아가는 형태의 잔여 적, 즉, 흔적을 생각하여 선과 공간적인 여백을 가지고 있다.

조형성은 미해체(美解體) 상태에서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대상

의 리듬을 통한 반복을 제시 하고 있다.

2.작품의 형태적 특성

1) 작품의 기본 형태

기존의 나비 형태를 모티브로 ‘의태어’에서 유래 되어, 불리는 이미지를 리듬과 반복적인 선의 형태로 풀어내는 작업으로 선택 하였다.

나비가 지나간 흔적, 심상적 수단으로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고운 햇빛에 닿을 듯 말듯 날아가는 나비를 ‘나빌레라’로 표현되어, 나비의 운동성을 외곽선의 형태로 중첩하여 나비의 전체적 형태를 제작, 의도 하였다.

공간적 특성인 ‘틀’이라는 영역 안에서 선과 선들이 만나서, 나비의 외곽선으로 연출하고 날지는 않지만 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선의 다양한 형태를 곧은 선, 반 원적 선의 형태, 뾰족한 선, 여러 가지의 선의 형태들이 만나 나비의 선을 만들고 있다. 이는 일상적 생활에서 사람들의 성격을 선으로 표현 될 수 있다.

선이 형성하는 복합구조는 본인의 심적 공간을 형성시키며, 삶의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을 표현함은 물론 삶의 자살한 이야기를 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품어서 오늘의 일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을 자유롭고 자율적인 리듬감과 반복된 선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고, 나비 날개의 외곽선은 부드러운 유선형으로, 확대와 축소된 이미지로 구성된 조형적 표현을 의도하였다.

선의 자율적인 형태와 각 선들이 만나 전체적 형태를 이루고 그 외적 공간은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공간적 여백으로 표현 되었다.

2)작품의 재료

현대미술에 있어서 혁신적 혁명을 꼽으라면 아마도 오브제의 활용 일 것이다.

큐비즘, 다다, 초현실주의, 누보레알리즘, 팝아트, 키네틱 아트에서 현대의 개념미술까지 예술 작품의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시키며,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전개 되어 왔다.

오늘날 광의적 오브제로서 사물을 재해석하고, 의미 부여되는 개념으로 전개된다.

나비의 작고, 나약한 존재를 공업적 재료인 강질의 스텐레스 스틸과 자연에서 얻어진 자개의 각기 다른 성질의 재료들을 연결해주는 오브제와 오브제의 결합이다.

조형화 된 선의 형태들을 구부리고, 갈고, 용접을 통하여 나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직선적 간결한 선의 성격을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 재료의 성질을 이중적 성질로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나비의 형태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나비의 화려한 날개 깃을 표면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자개로 사용했다.

마모 되어 없어진 단백질 덩어리를 자개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함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미술 작품에 있어서 일반적 오브제의 양상으로 오브제와 오브제 또는 오브제와 오브제는 주체와 객체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되며, 이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오브제의 양상이다.

박덕흠 외, 현대미술의 기초, 재원, 2001, p186

3)리듬, 반복에 의한 선

나비의 표현적 수단으로서 ‘틀’이라는 공간적 영역에 조형화 된 선(線)의 형태에 의한 변화, 즉 리듬, 굴곡에 의해 나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물성을 구부리고, 감고, 피는 작업은 나비 외형적 형태를 이루 있는 선의 기초적인 작업이다.

공간 안에 이루는 각 개체간의 연결 속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선의 형태는 시각적 이미지와 아귀가 맞는 이해관계로 선과 선이 연결되어 있다.

‘반복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사한 것도 등가적인 것도 갖지 않는 어떤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것과 관계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이 반복은 자체로 아마 더욱 비밀스러운 어떤 떨림의 반향일 것이다.’

선(線)은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로서 그 자체로도 충분한 운동이나 방향의 힘을 표출하고, 선의 장단, 각도,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표정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함으로써 선 그 자체가 작가의 감정 상태 및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나비의 외적 형태를 제작하는데 원형적 선, 직선, 포물선, 반 원적 선 등을 통하여 리듬과 반복의 형태를 이루고, 그 자체로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화 역, 민음사,2004,p26

3. 작품분석

예술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기를 둘러싼 현실세계와 경험적 관계들이 자기 내부에 살아 있는 감각이나 상상력을 동요시켜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표현은 작가의 본능적 충동의 표현이며 삶의 표현이다.

나비는 공간이라는 영역에 가늘고 긴 선의 형태를 만나 본인을 대변하여 영역, 위치, 이상을 향해 날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그 안에서 사물을 통해 ‘상황’으로서의 공간을 구성함에 따라서 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상징을 띠고 가시화 되었다.

실존적 공간과 가시적 공간의 함축적인 이미지를 그려 넣고, 보다 실적인 공간의 영역을 추구하는데 있다.

조형적 선들은 ‘틀’에 의해 표현될 수 있으며 우리의 시각은 그 선을 따라 리듬과, 반복의 표현에 의해 시각적 운동을 제시하였다.

일상의 굴곡진 상황 전개와 이상의 근본적인 목적을 찾기 위해 선들을 따라 그려 나가듯 형태를 찾기 위한 선들의 움직임이다.

무수한 점들의 실체인 선은 자립적인 시각 대상임과 동시에 그것은 공간을 표상(表象)하는 이중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선이 점과 같이 시각적으로는 3차원에 엄연히 존재하고 기본적인 공간의 라인을 관념적인 선으로 인식되고 표현과정에 물성과 선의 결합을 형성하게 되었다.

조형형태란 일반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결합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 형태로 다른 유형의 자질의 존재성을 갖게 하고, 그 형태는 공간과 만나 주변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에 접근성을 말하고 있다.

공간의 면적은 어느 영역에도 포함 할 수 없는 모호한 심리적 상태를 말하고 그로 인해 개별적인 요소로 풀어 나가려한다.

본인은 시각적인 조형화 된 선의 형태와 반복, 율동, 공간의 동시
지각의 힘을 느끼는데 출발점을 두고 있다.



[작품 1] 선의 흐름 I 200×200×18cm

[작품 1] 선의 흐름 I

크 기 : 200×200×18cm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철, 와이어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과장된 나비의 형태는 화판을 직소로 본을 뜬 후, 나비 형태인라인에 맞춰 스테인레스 스틸을 절곡, 밴딩, 롤링하고 용접 하였다. 그 안에 와이어는 프레임과 나비의 외곽 형태의 중심에 한 줄 한 줄 관통하여 엮었다.

이 작품은 나와 세계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고 의식하는 것은 나와 연결해 주는 시·공간의 지각(知覺)을 통해 들어오는 현대의 대상과 나의 세계가 맞닿는 곳에서 작업의 소재, 대상과 사물들은 각기 다른 존재하는 무한 공간의 연출이다.

우리가 보는 나비는 만지면 부서져 버리는 약한 개체지만, 거대한 크기의 대상인 3개의 정해진 영역 즉 공간이라는 ‘틀’에 나비와 관계를 맺으며 일탈 될 수 없는 삶의 관계와 환경, 미래적 지향을 나비라는 대상으로 무한한 잠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비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유선형적 선, 뾰족하게 만나는 선, 직선, 등은 나비의 외적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선 자체에서 주는 방향, 각도, 장단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선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작품 2] 선의 흐름Ⅱ 가변크기

[작품 2] 선의 흐름Ⅱ

크 기 : 가변크기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자개, 철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스테인레스 스틸의 용접, 각 개체의 선들을 밴딩 후 용접하고 자개를 부착하였다.

이 작품은 가시적인 공간과 비가시적공간을 연결해 주는 공간으로서 화합과 사교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미적 형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 하고 직관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영역 안에서 내적의 구심과 집단적이고 추상적인 상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사각형, 원형의 형태 속에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하여 물성의 공간이 아닌 비어 있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선의 형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곧은 선, 원형적 선의 형태를 쓰고 있다.



[작품 3] 선미의 흐름 III 180× 50 × 20cm

[작품 3] 선의 흐름Ⅲ

크 기 : 180× 50 × 20cm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철, 자개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스테인레스 스틸의 용접, 각 개체의 선들을 밴딩 후 용접하고 자개를 부착하였다.

이 작품은 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전체형태의 ‘형상 공간’에 크고, 작은 운동감의 변화를 표면을 나타내고, 선들의 반복적 형상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틀’ 안에 짜인 나비의 형태는 무수한 사고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조형화 된 선으로 그리고 비어져 있는 공간은 삶의 가상의 부피를 말하고 있다.

‘틀’ 속에서 5개의 나비들은 서로 다른 조형화 된 선들로 나비의 형태를 만들어지고 있다. 선의 리듬감, 반복, 굴곡 등은 그 자체의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4] 선의 흐름Ⅳ 가변크기

[작품 4] 선의 흐름IV

크 기 : 가변크기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자개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스테인레스 스틸의 용접, 각 개체의 선들을 밴딩 후 용접하고 자개를 부착하였다.

이 작품은 각기 다른 형태에 의해 보이는 선의 높낮이의 굴곡, 눈에 보이는 선적인 흐름에 따라 형태적, 공간적 이미지를 시각화하므로 인해 공간이라는 영역을 조형화 하였고, 나비의 형태적 구조속에서 보이는 리듬감과 운동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5] 선미의 흐름 V 가변크기

[작품 5] 선의 흐름 V

크 기 : 가변크기

재 료 : 스테인레스 스틸, 자개, 오브제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스테인레스 스틸의 용접, 각 개체의 선들을 밴딩 후
용접하고 자개를 부착하였다.

이 작품은 자유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과정이다. 각기 다른 선의 중첩과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리듬과 반복은 전형적인 나비의 형태를 재구성하고 선과 선 사이에 공존하는 공간은 전형화 되지 않는 사고 즉 무의식 세계관을 말 하고 있다.

숨을 불어 넣으면 이내 곧 날아갈듯 한 나비를 강한 스테레스 스틸의 재료를 씌으로써 견고하고 강함의 나비로 인식하고자 하였고, 날개에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해 자개를 썼다.

Ⅲ. 결 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적, 자연적, 삶의 지각적 형태들은 공간이라는 영역 안에 표현되어지고 그로인해 이상적인 삶의 지향을 바라보고 있다.

공간은 ‘틀’에 의해 우리에게 인식되고 그 ‘틀’은 선에 의해 표현될 수 있으며 우리의 시각은 그 선에 따라 운동하면서 공간을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상과 같이 공간개념에 대한 내용이 선의 공간구성의 시각적인 대상으로 조형화 되는 ‘나비’를 상징적 형상의 공간과 선(線)적인 리듬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인 작업은 공간 안에서 보이는 이미지 즉,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선의 공간적 역역 안에 형태를 이루는 대상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 되어지는 조형성을 추구 하는데 있다.

선(線)적인 요소가 공간이라는 영역에서 리듬감과 반복 구조로써 형태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조형미를 추구하는데 작업에 목표를 두고 있다.

참고 문헌

E. B펠트만, 「미술의 구조적 이해」, 열화당, 1983

양주동 감수, 바른말 국어대사전, 대성 출판사, 1979

니코스 스탠고스 편,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2000

나카하라 유스케(中原佑介), 「現代彫刻」 이윤신 한국미술년감사, 1989

고유섭, 「한국미술사 및 미학논고」, 서울 : 통문관, 1963

장-루이 페리에 저, 「20세기미술의 모험」, 에이피인터내셔널, 2000

하버트 리드, 「서양현대조각의 역사」, 시공사, 1998

R.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서울:홍성사, 1984

데이비드 A.라우어, 『조형의 원리』, 서울:예경, 1996

박덕흠 외, 현대미술의 기초, 재원, 2001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ABSTRACT

A study on linear spatial expression

-Focusing on my Works-

IN, min-young

Sculpture Major

Dep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line is limited to the outline or assumes plasticity by itself according to the ways in which it is expressed because it restricts the surfaces of the various things prescribing our space or belongs to a thing itself.

I significantly understood spatial domain with a line in space as material, recognized it as the plasticity of spatial expression in contemporary sculpture where spatiality is recognized by a line and the inner world of thinking and pursued the changes by spatial and linear rhythm and the beauty of space with a line as a plastic element as material in the limit of extremely personal and subjective space.

This thesis concentrated on describing methods of expressing such a work of mine formally with spatial and linear elements. It consisted of total three chapters.

Chapter 1 Introduction described the purpose and method of study in this thesis.

Chapter 2 Body describ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y work and the method of expressing it, a line in space appearing in it and 'a butterfly' as a plastic object, and finally analyzed individual works.

Chapter 3 Conclusion arranged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nd described tasks to have to study more in the future.